

## 솔 벨로우의 『죽음보다 더한 실연』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이 영 애  
(강원대학교)

Yi, Youngae. (2006). A study on Bellovian love in Saul Bellow's *More Die of Heartbreak*.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4), 235-251.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at Saul Bellow wants to define "Love" in his recent work, *More Die of Heartbreak*. As a humanist, Saul Bellow is concerned about materialism in Post-modern age through his works. Today there are so many people that are hurt by the failure of love or experience heartbreak. We need to sense invisible danger all around us. We can find Bellovian love in *More Die of Heartbreak*. Bellow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true love" between people, especially between men and women. But Kenneth Trachtenberg and Benn Crader have selfish and materialistic love. Kenneth had only a sensual desire for Treckie who is his daughter's mother. He cannot persuade Treckie to marry him. Benn, a middle-aged widower, peremptorily marries Matilda Layamon who is much younger than he. Unfortunately, the marriage brings him neither peace nor love. Benn recognizes his wrong conception of love through the death of Mrs. Bedell and Villitzer, and breaking off a marriage with Matilda. He decides to go to Antarctica. This is not an escape. This is his determination to save himself. At the North Pole he sets out to recover his gift of vision and redeem his fall from grace. He will desert his materialistic and absurd self. After the expedition, he will experience rebirth as an authentic human being who has acceptable eyes. Kenneth and Benn learn to conceive of love as one of man's strongest inner energies, for it is through love that you can penetrate to the essence of human being. In this study I try to define Bellovian love. In *More Die of Heartbreak*, love is a spiritual power that may even transfigure man.

[Saul Bellow/*More Die of Heartbreak*/selfish love/materialistic love, 솔 벨로우/『죽음보다 더한 실연』/이기적인 사랑/물질중심적인 사랑]

## I. 서론

솔 벨로우(Saul Bellow)의 작품 『죽음보다 더한 실연』(*More Die of Heartbreak*)(1987)은 오늘날의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사랑에 반기를 들며 벨로우적인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저는 방사능 보다 실연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I think more people die of heartbreak than of radiation.)(*More Die of Heartbreak* p. 79)<sup>1)</sup>라는 말은 솔 벨로우가 『죽음보다 더한 실연』에서 주인공 벤 크레이더(Benn Crader)의 입을 통해 자신의 주제를 간접적으로 예시해 준 말이다. 벤이 식물 생태계와 방사능의 수치의 증대에 관해 기자의 질문을 받고 던진 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랑으로 인해, 혹은 진실한 사랑을 받지 못해 상처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물질중심적인 세계에서 인간으로서의 고귀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 같다.

“벨로우는 미국의 위대한 소설가로 이미 운명 지워져 있었다”(Gold, p. 38)는 지적에서와 같이 벨로우는 그 어떤 작가보다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벨로우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해답을 찾도록 포기하지 않게”(Hamburger, p. 31)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 있는지 간에, 벨로우는 그 속에 도덕적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죽음보다 더한 실연』에서도 벨로우의 긍정적인 믿음은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작가의 긍정성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져 있다.

현대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대량 생산과 생활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다주었지만, 물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물질에 종속되게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는 자동차나 핸드폰이 없이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물질에 대한 의존은 상대적으로 정신적 빈곤을 가져오게 되었고, 우리는 정신적 황폐화를 겪으면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조차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주인공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가장 인간

1) 이하 『죽음보다 더한 실연』의 본문 인용 시 페이지 수만 표기함.

다운 의미를 지니도록 해주는 사랑에 있어서도 물질적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정신적으로도 만족을 갖게 되는 도착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 지를 벨로우는 은연중에 독자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다.

현대인에게 순수한 의미의 사랑이나 인간애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이 보인다. 이런 현대인의 사랑이 잘못되었음을 벨로우는 『죽음보다 더한 실연』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벨로우는 대표적인 유대계 작가로 볼 수 있지만, 본 논고에서는 유대계라는 특정 인종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본주의 작가로서 그의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긍정성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sup>2)</sup>.

“『죽음보다 더한 실연』은 소설이라기보다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랑에 대한 해부라고 할 수 있다”(Michaels, p. 293)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벨로우는 이 작품에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다. 벨로우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들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한 지성인”(dissatisfied intellectual)(Cusac, p. 46)으로 자본 중심적이고 경쟁 중심의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물질적인 성취를 위해, 혹은 자신의 성욕과 같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남성들을 악용한다. 이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상적인 사랑이 존재하기란 불가능하다. 『죽음보다 더한 실연』은 이렇듯이 순수하지 못한 현대인의 사랑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랑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벨로우는 『죽음보다 더한 실연』에서 현대 사회의 어지러운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있는 개인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제대로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여 시대적 변혁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독한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케니스 트라첸버그(Kenneth Trachtenberg)와 그의 삼촌인 벤 크레이더가 바로 이런 고독한 개인들에 포함된다. 케니스는 러시아 문학 교수이고 벤은 교수이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이다. 이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두 명 모두 사랑에 대해서는 실패자이다. 비록 지금은 사랑의 패배자이지만, 이 두 인물을 통해 벨로우가 보여주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 II. 본론

2) 미국 문단에서 소위 인종적 소수파(Ethnic Minority)에 속하는 작가들의 소설들은 전통적으로 보다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편협한 인종적 특수성이라는 틀을 뛰어 넘지 못하는 작품의 한계성 때문에 미국 사실주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작품들에 비해 작품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백낙승, p. 215). 따라서 본 논고에서 필자는 술 벨로우를 유대계 작가가 아닌 인본주의 작가로서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죽음보다 더한 실연』은 『괴물 대회』라는 만화의 한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장면에는 묘비와 주목 나무가 있는 전형적인 공포영화를 연상시키게 하는 무대를 배경으로 “아주 처량한” 연인이 등장한다. 남자는 무시무시한 인상을 하고 있고, 여자는 긴 머리에 검은 마녀 복장을 하고 있다. 여자가 먼저 “자기, 불행해요?”라고 묻자 남자는 “그럼. 아 그럼! 아주 완벽할 정도로 불행하지”(p. 2)라고 대답한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에게 행복한 지를 궁금해 하지, 불행한지를 궁금해 하지 않는다. 괴물같이 생긴 두 연인의 외모는 우리의 머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둘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도 역시 연인들 사이에 오고갈 수 있는 전형적인 대화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비평가 세이퍼(Safer)는 이 만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이상적인 사랑을 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불행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행복해지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pp. 206-207)이라고 지적한다. 이 지적에서처럼 만화 속에 나오는 두 연인의 이미지는 코믹한 냉소주의로 전형적인 사랑의 개념을 전복시키고 있고, 오늘날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작품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케니스는 “진정한 마음이 없는 아름다움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따뜻함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발명품을 위해 이용되어지고 있다.”(p. 246)고 말하는데, 이 말에서처럼 현대에는 진정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따뜻함마저도 수단으로 이용되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평가 마이클은 “사랑은 다양한 형태의 환영(illusion)에 기초하고 있다”(p. 294)고 말한 바 있는데, 이 환영에 사로잡혀 결국 현대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랑이나 인간애를 도구화시키게 된다.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기대와 차가운 현실의 부조화”(the incongruity between romantic expectation and cold reality)(Safer, p. 204) 속에 현대인들은 결국 좌절하게 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인 케니스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에게는 다섯 살 된 딸이 한 명 있는데, 그는 자신의 방황의 정착을 위해 그녀의 엄마인 트레키(Trekie)에게 청혼을 했으나, 그녀는 이를 거절하고 그를 떠나 시애틀에서 스키 강사와 동거생활을 한다. 케니스는 트레키가 왜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과 트레키와의 관계를 물리학에 비유해서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트레키의 경우를 물리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곤 했다. 미립자 A는 미립자 B에게 특별히 필요한 전하를 가지고 있다. 참된 친화력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계약이

지닌 위험을 상쇄시켜준다. 비록 결혼이 계약으로서 시작되지만, 결혼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만 한다. 어쨌든, 현재까지 나는 트레키와 내가 잘 어울리는 미립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평생 동안 어울릴 수 있는 이상적인 한 쌍이라는 것을. (p. 55)

사랑을 과학 공식처럼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케니스의 사랑에 대한 이런 관념은 그를 자신만의 세계 속에 가두어놓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아의 틀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케니스는 자신과 가장 가까워야할 존재인 트레키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공식에 만족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공식 속에서 “케니스는 자신만의 미학적, 문학적인 성취(aesthetic and literary pursuits)를 하고자 하는 목표만을 추구하고 있다”(Bigler, p. 175).

케니스의 이런 목표의식은 그의 우월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시인 포우의 사랑과 비교함으로써 타인과는 다르다는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sup>3)</sup>. 그러나 케니스는 트레키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생긴 시커먼 멍 자국에 대해서 따지지도 못하는 비겁함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트레키는 케니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다음과 같이 지적 한다: “당신은 당신만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기만족적인 사람이에요”(p. 60) 트레키는 케니스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포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케니스는 트레키가 “무엇을 원하는지”(p. 82) 전혀 알지 못한다. 결국 케니스는 트레키를 설득하려 시애틀까지 찾아가지만, 트레키가 아직도 자신과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채 돌아오게 된다. 왜냐하면 트레키에게 케니스는 일시적인 성의 상대자였기 때문이다. 결국 케니스는 “트레키의 성적 유희의 패배자가 되어 버린다”(송창호, p. 343).

케니스가 이렇게 패배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에게는 트레키의 영혼까지 꿰뚫어볼 수 있는 심미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육체와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결국 육체적인 사랑은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다<sup>4)</sup>. 이 “자기만족적인

3) 케니스의 트레키에 대한 사랑은 다분히 일차원적이다. 케니스는 트레키의 외모에 반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트레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트레키는 작은, 정말로 작은 여자이다. 그리고 나는 여성적인 성숙미가 결합된 매력에 매료되었다. 이 매력적인 여자, 풍만한 몸매와 잘 발달된 가슴과 어울리는 작은 미소를 띤 얼굴을 한 그녀에게 나는 푹 빠져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원주민 소녀 같았다. 나는 마치 에드가 알랜 포우와 그가 결혼한 저능아 소녀처럼, 이 어린아이 같은 여자에게 이끌려간 것일지도 모른다.”(p. 55) 이 말에서처럼 우리는 케니스가 트레키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육욕 뿐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 하이랜드(Hyland)는 자기만족적인 육체적 사랑을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시 「흙과 자갈」(“The Clod and the Pebble”)에 비유하여 예시한다. 이 시에서 “사랑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려고 /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 것을 이용하며”를 인용하여 에로틱한 사랑이 가진 이기심을 보여준다(pp. 100-101). 물론 블레이크의 이 시는 작품 속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사랑은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그 대상까지도 부주의하게 만든다”(Hyland, p. 100). 케니스는 트레키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고, 트레키가 자신의 아이까지 낳았으니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케니스의 주변에는 디타 슈왈츠(Dita Schwartz)라는 여성이 있다. 디타는 케니스의 러시아 문학 강좌를 들었던 학생으로, 곧 슬라브어 문학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게 된다. 그녀는 케니스를 사랑하면서,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케니스의 편안한 안식처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케니스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는다. 케니스가 자신의 우월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케니스의 여성에 대한 사랑이 일차원적이라는 사실은 디타와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케니스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녀의 외모에 있다. 그녀의 피부는 “복잡하게 엮어서 짠 조직”(p. 181)같고, 그런 자신의 외모에 대해 그녀는 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특히 트레키의 사진을 본 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더 상실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디타는 싸구려 피부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고, 그녀는 피부를 깎아내는 수술을 받게 된다. 그녀는 수술실에 누워 피부가 벗겨지는 소리를 들으며 고통스럽지만 “해방감”을 느낀다(p. 198). 디타의 성형 수술은 외모지상주의적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쿠즈마도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디타는 켄의 사랑의 받기 위해 고통스러운 성형 수술을 받게 된다. 그녀는 켄이 “가학피학성”(sadomasochism)이라고 정의한 것에 의해 정해진 외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게 된다. 여성의 외모가 내적인 면이나 도덕성보다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피부를 벗겨내는 것쯤은 가학피학성의 예로는 들 수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여 진다. (Kuzma, p. 311)

이 지적에서처럼 현대 사회는 한 인간의 내면보다는 외모를 더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타의 수술은 그 이후가 더 끔찍한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을 감싼 붕대는 이내 피로 젖었고, 그녀는 고통으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게 된다. 디타는 『죽음보다 더한 실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희생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데, 그녀의 사랑을 위한 희생정신은 결국 케니스를 감동하게 만든다.

육체미와 외모 편집증에 걸린 케니스를 진실로 사랑하며 그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자신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갈아대는 성형수술, 즉 사랑의 순교를 결행한 디타를 보고 케니스는 자신의 여성관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케니스는 그녀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병간호를 자청

하게 된다. 아이러니한 점은 디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디타는 기대했었던 것만큼 새 얼굴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타를 보살피면서 케니스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디타의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다음 인용부분은 케니스가 디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나는 그녀의 얼굴 이상의 것을 그녀에게서 볼 수 있었다. 결국 여성에게는 얼굴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 여기 나를 위해 자신의 얼굴을 잔인하게 같은 여성이 있다. 그리고 그녀가 그러는 동안 나는 트레키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디타는 그녀만의 사랑을 나에게 제공했고,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외톨이가 아니었던 것이다. (p. 202)

여기에서 우리는 케니스가 디타의 사랑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트레키를 좋아했었던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다. 케니스는 형이하학적이었던 여성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 형이상학적인 면까지 통찰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케니스의 인간적인 성숙은 트레키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단순한 질투심에서 그는 트레키와 동거를 한다는 스키 강사를 만나기 위해 다시 시애틀로 향한다. 케니스는 트레키가 스키 강사와 곧 결혼할 것이라는 소식에 분개해 있었고, 시애틀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케니스는 스키 강사를 만나면 흠뻑 패출 상상을 한다. 트레키의 집에 도착한 케니스는 스키 강사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대신에 그는 욕실을 엉망으로 만든다. 그 누구보다 이성적인 케니스이지만, 그는 자신의 이성을 잃은 채 변기를 부수고, 욕실 물품들을 집어 던진다. 그러나 그 순간 케니스는 “남녀 사이(아이까지 포함된)의 안정된 친밀감의 냄새가 바닥으로부터, 수건에서, 수도관에서, 변기 바닥에서, 인간의 암모니아 냄새, 유황 냄새, 유기산 냄새”(p. 302)를 느끼게 된다. 이 좁은 공간에서 케니스는 답답함과 동시에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다. 케니스의 숨을 조여 오는 이 답답함은 케니스 자신을 “침입자”(p. 303)로 여기게 만든다. 그리고 그곳에 배어있는 냄새는 형식적인 결혼 증명서보다 이 두 남녀가 진실한 사랑으로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게 된다. 케니스는 트레키에게서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된다. 이 장면을 하일랜드는 작품의 클라이막스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설명한다.

케니스는 로날드를 패주는 상상을 하며 트레키를 만나기 위해 시애틀로 갈 때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트레키의 침대보를 찢고 욕실을 엉망으로 만든 후 그는 자신의 상황이 멜로드라마와 같으며(마치 욕실 창문을 통해 거스바흐를 보고있는 허조그처럼) 그는 트레키가 찾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디타 슈왈츠는

그가 찾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진정한 가치를 이해함과 동시에 사랑을 가지고 그녀에게 돌아오게 된다. (pp. 99-100)

이와 같이 케니스는 트레키를 통해 육체적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잘못된 사랑을 인식하고, 자신을 위해 사랑의 순교를 행한 디타에게로 돌아와 진정한 사랑을 완성하게 된다.

『죽음보다 더한 실연』에서 케니스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벤의 사랑도 아주 중요하다. 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대로 아주 유명한 식물학자이다. 그는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뒤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싱글인 상태이다. 벤은 식물 해부학과 형태학을 전공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탁월한 식물학자”(a botanist of a “high level of distinction”)(p. 7)이지만,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그는 “여성의 행동을 간파하지 못하는 단점”(p. 5)을 가지고 있다. 케니스는 벤을 가리켜 “소중한 괴짜”(valuable oddity)(p. 7)라고 부르는데, 이 특이한 괴짜는 그 별명에 맞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큰 체격에 짙푸른 바다색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케니스는 벤의 눈이 “무한대( $\infty$ )처럼 누운 8자형”(a figure eight laid on its side)(p. 47)을 닮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벤의 눈은 수용형으로 빛을 반사하려고 넓게 열려있다.<sup>5)</sup>

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바로 그의 편견이다. 벤은 성적인 면에 있어서 한 가지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남녀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미친 남녀 둘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 정신병자 둘이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것”(p. 43)이라고 생각한다. 비평가 테너(Stephen L. Tanner)는 이 작품에서 “섹스와 사랑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Neelakantan, p. 120). 『죽음보다 더한 실연』에서 섹스는 의식을 통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비평가 니라켄턴은 이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벨로우의 세계에서 섹스는 높은 차원의 의식과 낮은 차원의 의식이 동일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높은 차원의 의식은 인간 존재의 목표가 사랑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의식하고 있지만, 세속적인 육체 놀음을 포함하고 있는 낮은 차원의 의식은 인간의 유한성(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에 대해 둔감하게 만든다. (Neelakantan, p. 120)

여기에서 섹스는 퇴폐적인 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공허함을 채워 줄

5) 작품 속에서 벨로우는 어느 러시아 철학자가 인간의 눈을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인간의 눈은 수용형과 의지 발산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용형은 빛을 반사하려고 넓게 열린 반면, 의지 발산형의 눈은 먹이를 찾는 눈처럼 모든 것을 자세하게 살핀다. 수용형의 눈에는 세상이 에텐 동산이나 영원한 현재로 보이는 반면에, 후자의 눈에는 전기와도 같은 의지가 흐른다는 것이다”(p. 47). 벤 삼촌의 눈은 당연히 전자에 속한다.

수 있는 사랑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진정한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케니스처럼 트레키의 아름다운 육체만을 탐해서도 안 되고, 벤처럼 정신적인 사랑만을 꿈꾸어서도 안 된다.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고, 현대인의 공허함마저도 가득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벤이 가진 공허함은 전 세계를 다니며 여행을 함으로써 조금 상쇄된다. 케니스는 삼촌의 방황이 중지부를 찍고 이제 정착하기를 원한다. 케니스는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삼촌을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의 배를 따라간 ‘신천옹’(albatross)<sup>6)</sup>에 비유한다(p. 24). 케니스는 삼촌이 다니는 여행이 가진 위험뿐만 아니라 삼촌의 기본적인 판단력에 대해서까지 염려하고 있다. 케니스는 삼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못 충고 받거나”(ill-advised), “성급하게”(rash)(p. 25) 행동하게 될 것을 걱정한다. 심지어 케니스는 “삼촌의 애인으로 인하여 자신과 벤 사이에 공유했던 지적인 생활(intellectual life)이 방해받을 것을”(Cusac, p. 47) 우려하기도 한다. 케니스의 우려는 벤이 케니스의 동의 없이 마틸다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는 데서 드러난다. 벤은 자신의 방황을 마틸다와 결혼을 함으로써 끝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마틸다와의 결혼은 벤에게 고난의 시작이 된다.

여기에서 마틸다와의 결혼을 다루기 전에, 벤에게 있었던, 그의 무책임함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 벤은 마틸다를 만나기 전에, 백화점의 상속녀인 캐롤라인 번지(Caroline Bunge)라는 여성과 결혼할 뻔 한 적이 있다. 그 둘은 푸에르토 리코(Puerto Rico)에서 만났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자에게 약한 벤은 캐롤라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도전적인 태도와 그녀의 성적 매력에 빠져 교제하게 된다. 이혼녀인 캐롤라인은 그 당시 정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벤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그리고 벤도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친절함에서 우리나라와” 동의하게 된다(p. 54). 그런데 벤은 캐롤라인이 변호사가 작성한 결혼 동의서를 가지고 온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일본행 비행기를 예약한다. 그리고 캐롤라인과 결혼을 하기로 한 날 케니스와 함께 일본으로 떠난다. 비평가 비글러(Bigler)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주변 인물 중 하나로 캐롤라인 번지를 꼽는다. 벤 크레이더는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misogynist)이며, 캐롤라인은 “진정한” 사랑 없이, 결혼이라는 목표에 빠져있는 중년의 여성으로 간주한다(p. 182). 벤이 캐롤라

6) ‘신천옹’의 이미지는 시인 콜리리지(Coleridge)의 「노수부의 시」(“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에서 나온 것이다. 이 시에서 ‘신천옹’은 음식과 유희를 위해 선원들의 배를 따라갔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Abrams ed., pp. 63-81). 콜리리지의 시에 등장하는 신천옹은 “길조의 새”(a bird of good omen)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으나, 『죽음보다 더한 실연』에서 벤을 신천옹에 비유한 것은 벤의 순수성과 그가 가진 비범한 능력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

인과 사랑 없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벤과 연관된 여성 중에는 벤이 사는 아파트의 아래층에 거주했던 델라 베델(Della Bedell)이 있다. 어느 날 벤은 전구를 교체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베델 부인의 방문을 맞게 된다. 그리고 그날 밤 벤은 뜻하지 않게 베델 부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다. 이날 이후 벤은 베델 부인을 일부러 피하게 된다. 무의식적인 육체적 성충동에 의한 생물학적 성관계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며, 정신적 교감에 따르지 않는 성관계는 일시적인 쾌락이고 진통제일 뿐이다(송창호, p. 338). 벤은 사랑에 대해 “내면세계의 한 신성한 영역으로서 변함없는 친밀함”(p. 75)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면의 진실한 사랑과는 상관없이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벤은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벤은 베델 부인으로부터 쪽지 한 장을 받게 된다. 그 쪽지에는 “집에 있으면서도 외출하고 없는 척 하고 있군요. 제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그리고 내 성욕은 어떻게 해야 하죠?”(p. 78)라고 적혀있다. 이 장면은 아주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성적인 면에서 거부당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절망감을 아주 잘 보여준다. 문제는 남성과 여성은 “성적인 면에서의 실패를 곧 인간으로서의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Hyland, pp. 100-101). 그 뒤, 벤은 브라질로 도망치듯 가서, 형태학 강의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 벤의 도피를 타당하게 만들어 주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베델 부인에 대한 묘사이다. 벨로우는 베델 부인의 외모를 “너무 뚱뚱하고,”(too stout) “어울리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한”(unbecoming, modified punk) 여성으로 묘사한다. 그녀는 “뚱뚱하면서도 작은 사람”(a fat little person)이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갖기에는 부적절한 육체”(Physically unsuitable for such desires)를 가졌다고 묘사된다(p. 77). 비평가 하일랜드도 베델 부인은 “성적인 욕구를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는 인물”로 묘사한다(p. 101). 베델 부인에 대한 이런 묘사는 굉장히 혐오감을 주며, 결국 벤과 그녀와의 관계는 일시적인 충동이었음을 타당화 시키고 있다. 벤이 브라질로 떠난 뒤, 베델 부인은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다.

그녀의 죽음은 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다. 벤은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음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 벤은 그녀의 “부풀은 갈망”(swollen longings)(p. 79)으로 이미 질식된 그녀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벤은 학과장이 자신에게 떠넘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식물 생태계와 방사능의 수치의 증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된다.

며칠 전 어느 기자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지. 학과장인 블리엄이 그를 내게 떠 넘긴거지. 그 기자는 식물 생태계와 방사능 수치의 증가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어 했지. 또한 다이옥신이나 그 밖의 다른 해로운 물질들에 대해서도 말이야. 그는 굉장히 도전적이었

어. 나도 나쁘다는 것에 동의했지. 그렇지만 결론에서 나는 ‘그 문제도 물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사능보다는 상심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지. (p. 79)

기자와의 인터뷰에서처럼 벤은 베텔 부인의 죽음에 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으며, 그는 진실한 사랑을 찾는 방랑자와 같은 인물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벤의 말은 기계로 위험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사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작가가 현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켜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벤의 입을 통해서 이 소설의 제목을 끼워 넣어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다음의 파이퍼(Pifer)의 지적은 작가의 주제를 정확히 보여준다.

벤의 이단과 같은 말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치명적으로 위험한 요소 두 가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과학은 높은 수치의 방사능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실연”이라는 치명적인 상태는 과학적 기구에 의해 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벤 눈으로 방사능을 볼 수 없듯이, 인간의 비참한 불모의 상태는 과학적 기구에 의해서가 아닌, 인간의 마음에 의해 측정될 수 있음을 벨로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pp. 302-303)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사능은 과학적 장비로 그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실연”의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벤이 말했듯이, “실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방사능이 지닌 위험이나 핵무기로 인한 재앙의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위급한 다른 문제가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한편으로, 벤의 말은 “동시대의 문화에 대해 좀더 급진적인 암시, 즉 보편화된 물질중심주의 그 자체가 더 위험한 위기”(Pifer, pp. 307-308)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현대에는 사랑의 실패로 인해 상처 받거나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벨로우는 눈에 보이는 위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고, 이 위험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하며,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타인의 구원을 위해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사랑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처럼 벤은 여성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재능이 없음을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벤이 “영원세계의 시민”(a Citizen of Eternity)(p. 89)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의 순진성은 세속적인 세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벤이 마틸다와의 결혼을 결정한 것은 케니스에게는 성급한 결정이자, 벤의

타락으로 보여 진다. 레이아몬가 사람들은 벤을 “부와 권력의 세계”로 끌어들이게 된다(Pifer, p. 302).

마틸다의 아버지 닥터 레이아몬(Dr. Rayamon)이 나이도 많고, 수입도 얼마 안 되는 벤을 사위로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몇 년 전, 벤은 할머니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그 유산 집행인으로 임명된 벤의 삼촌인 빌리처(Viltzer)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벤과 어머니에게 상속되기로 한 토지를 사들여 에클립틱 써클 전자 회사(Ecliptic Circle Electronics)에 팔았고, 이 회사는 크레이더가(家) 사람들이 살던 집터에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고층 건물을 짓게 된다. 그리고 이 거래에서 빌리처는 엄청난 이윤을 챙기게 된다. 케니스의 어머니는 벤과 함께 빌리처를 고소하지만, 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판사들을 빌리처는 이미 뇌물로 자기편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빌리처에게 빼앗긴 돈을 되찾자는 것이 닥터 레이아몬의 계획이었다. 그는 빌리처를 고소할 것이고, 벤이 나서기만 한다면 그 엄청난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평가 하일랜드는 닥터 레이아몬을 벨로우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빨리 말하는 사기꾼 중 한 명”(one more in Bellow’s line of fast-talking confidence tricksters)으로 평가한다(p. 103).

마틸다와의 결혼 뒤에 숨어있는 이런 의도를 알았을 때 벤은 빌리처를 고소하는 데 반대한다. 벤을 설득하기 위한 다음의 레이아몬 박사의 말은 그의 위선적인 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정의야. 자네는 수백만 달러를 사기 당했어. 자네의 새 가족이 자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거야. 그리고 그 권리에 의해 자네는 로아노크 같은 집에서 살아야해. 자네는 그런 스타일로 살 자격이 있어. 연구만 하는 쥐새끼가 아니라 부유한 과학자로서 말이지. (pp. 160-161)

결국 벤은 레이아몬의 사기꾼 같은 말에 넘어가게 된다. 빌리처에 대한 소송은 시작이 되고, 이것은 순수한 세계에 있던 벤이 배금주의로 물든 현실 세계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

벤은 마틸다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도 역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곧 벤은 그녀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속물 중 한 명이었음을 알게 된다. 사실, 벤은 마틸다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마틸다와 결혼하지 말라는 일종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무시했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결혼 전 여행을 하던 중 두 사람은 우연히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Psycho) 영화를 보게 된다. 비평가 쿠즈마(Kuzma)는 벨로우가 『사이코』라는 영화를 허무주의적인 비전을 보여 주기 위해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쿠즈마는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했었던 것들 즉, 사랑, 살인, 가족 관계와 같은 것들이 지닌 의미와 감정은 모두 없어져 버렸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pp. 306-307).

이 영화 속의 주인공 노만 베이츠(Norman Bates)는 신사답고 온화한 청년이지만 모친 살해자이고, 정신 착란으로 모텔에 투숙한 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이는 살인마이다. 사실 벤은 이 영화를 아주 싫어했다. 반면에 마틸다는 완전히 영화에 몰두해 있을 만큼 영화에 빠지게 된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 잔인한 살인마로부터 문득 벤은 누군가와 유사하다는 이미지를 받게 된다.

배경이 되고 있는 집만큼이나 있을 법 하지 않은 이 살인마는 긴 빅토리아풍의 치마와 검은 색의 면으로 된 블라우스를 어깨위로 펼친 채 입고 있다. 그 어깨는 단단하고 높았으며, 여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넓었다.

“마틸다로구나!” 살인마와 마틸다의 동일시는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뒤 쪽에서 본 그 살인마는 바로 마틸다였다. 이것은 아주 빠른 결론이었다. 벤에게 처음에 받은 인상은 늘 끝까지 유지되곤 했다. (p. 225)

영화 속의 살인마와 마틸다와의 동일시는 벤에게는 일종의 암시이다. 이 장면은 벤이 마틸다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벤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마틸다에 대한 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Michaels, p. 294).

살인자의 어깨를 통해 마틸다의 모습을 본 것은 벤이 식물에게 가지고 있던 통찰력이 인간에게로 돌려진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에게 그녀와 결혼하지 말라고(p. 225)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벤은 그녀는 자신의 약혼녀이고, 결혼식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초대장도 이미 다 인쇄된 뒤라서 결혼을 그대로 진행시키게 된다. 마틸다와의 결혼은 벤의 본성에 대한 역행임과 동시에 자연에 대한 역행이며 이것은 그의 타락으로 상징되어진다(Hyland, p. 103).

벤의 타락은 빌리처 소송으로 연계되지만, 벤은 자신이 빌리처와의 소송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그 돈의 주인은 레이아몬가 사람들이 될 것이 자명한 일임을 깨닫는다. 벤은 이제 서서히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낀다. 마틸다 옆에서 자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벤은 자신으로 인해 빌리처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벤은 마틸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벤은 “부정적인 물질 숭배자”(a negative fetishist)(p. 256)인 마틸다의 넓은 어깨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한다. 벤은 더 이상 과거의 벤이 아니다. 벤은 마틸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또한 사랑하지도 않는 마틸다를 위해 벤 삼촌과 싸워야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된다.

벤의 상심은 슐 벨로우의 단편인 「은 접시」(“A Silver Dish”)의 주인공 우디(Woody)와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진정한 인간애의 표본(a sign of true humanity)”(Schulz, p. 234)이 되고 있다. 이 지적에서와 같이 벤이 마틸다와 헤어지게 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아직 따뜻한 인간애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벤은 빌리치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빌리치가 있는 플로리다(Florida)로 즉시 떠난다. 플로리다에서 한 줌의 재로 다시 만난 빌리치를 보며 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 빌리치의 죽음은 벤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된다. 니라칸턴은 이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간주한다.

빌리치의 죽음은 벤을 위한 정화의 의식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 빌리치의 죽음은 벤으로 하여금 물질 속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한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벤은 자신의 깊은 본능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p. 124)

벤은 자신의 깊은 본능에 충실하고 자신의 사랑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북극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특수 연구를 위한 국제 과학자 팀에 합류한다. 벤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밤과 얼음뿐이라고 생각한다.

북극으로의 원정에 대해서는 비평가마다 견해가 다르지만<sup>7)</sup>, 본 논고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밤과 얼음만 존재하는 북극은 벤에게 혼란스러운 내면을 정리해주기에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이다. “자력”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북극으로 벤은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과, 가능하다면, 자신의 재능이었던 비전을 되찾기 위해” 떠난다. 이곳에서 그는 “타락했었던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Pifer, p. 308). 북극에서 벤은 자신이 레이아몬가 사람들과 있으면서 잃어버렸던 “재능”도 되찾게 될 것이다. 벤은 이제 마틸다를 비롯한 레이아몬 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

북극으로의 원정은 벤에게 패배가 아니다. 이것은 현실을 초월하여 전혀 때 묻지

7) 니라칸턴은 여러 비평가의 말을 인용하여 이 작품의 결론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언급한다. 먼저 부정적인 의견으로 칼 나이트(Karl Knight)는 이 장면을 “패배”이자 “후퇴”라고 해석한다: “벤은 어둠속에 숨어 버림으로써 자신의 지각력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라고 지적한다. 반면에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두 비평가가 있는데, 스티븐 테너와 리처드 키어넌(Richard F. Kiernan)은 이 장면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벤에게 비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테너는 “한계 중의 한계”인 북극에서 벤은 “영원 세계”를 미리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키어넌은 북극 원정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그의 과학적 헌신에 대한 확신과 과학을 통한 정화와 자기 치료를 위한 직관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Neelakantan, p. 125).

많은 순수한 세계로의 입문이라고 볼 수 있다. 벤은 물질적인 마틸다와의 파혼을 통해 자신의 물질중심적인 사랑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학문적 순수함을 되찾음과 동시에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 III.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대로 『죽음보다 더한 실연』은 케니스와 벤을 통해 이기적이고 물질중심적인 사랑은 옳지 못하다는 벨로우적인 사랑의 공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랑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두 주인공, 벤과 케니스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케니스는 외모 중심적이었던 여성에 대한 편력을 반성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트레키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또한 그는 자신의 딸인 낸시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역시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있는 디타와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게 된다. 벤은 북극으로의 원정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이러니 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인 사랑에 대한 편력을 베델 부인의 죽음과 빌리치의 죽음, 그리고 마틸다와의 파혼을 통해 깨닫게 된다. 그는 북극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의 모든 부조리한 모습을 버리고, 한때 물질 중심적이었던 자아를 완전히 초월하기 위해 현실을 떠나는 것이다. 북극에서의 원정이 끝난 뒤, 벤은 아마도 완벽한 인간으로서 수용형의 눈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케니스가 현재의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해 보이고 있다면, 벤은 초월을 통해 모든 아픔을 포용하는 형이상학적 사랑을 구현해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케니스와 벤의 사랑의 성취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벨로우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지구라는 세속적인 계란 속에 있다. 이 속에서 모든 창조물들과 모든 존재가 죽음 위에 살고 있으며, 때로는 사랑이나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죽음에 이르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것에 저항하기 위한 한 가닥 희망을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힘이 되고 있다. 물질 중심적이고, 기계화 된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벨로우는 『죽음보다 더한 실연』의 케니스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면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벤을 통해서 물욕에 사로잡힌 사랑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진실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을 통해

서만이 우리는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 이야말로 인간 존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백낙승. (2006). 필립 로스의 『포트노이씨 병』 연구: 유대적 정체성의 위기. *영어문교육*, 12(3), 211-226.
- 송창호. (2003). 『솔벨로우: 자아 문학 세계』. 서울: 한빛 문화사.
- Abrams, M. H. etc. (Eds.). (1993).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6th ed.). Volume 2.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Bellow, S. (1987). *More Die of Heartbreak*. New York: Penguin Books.
- Bigler, W. (1998). *Figures of Madness in Saul Bellow's Longer Fiction*. Berne: European Academic Publishers.
- Cusac, Anne-Mari. (2005). Saul Bellow reconsidered. *The Progressive*; 69(6), 45-48.
- Gold, H. (2005). In Bellow's company. *Commentary*, 120(2), 38-44.
- Hamburger, A. (2005). The art of reading Saul Bellow. *Poets & Writers*, 33(6), 27-31.
- Hyland, P. (1992). *Modern novelists Saul Bellow*. New York: St. Martin's Press.
- Kuzma, F. (1998). The demonic hegemonic: Exploitative voices in Saul Bellow's *More Die of Heartbreak*. *Critique*, 29(4), 306-323.
- Michaels, L. (1987, June 14). *More Die of Heartbreak*. *Los Angeles Times Book Review*, June (14), 1, 12.
- Neelakantan, G. (1996). From breakdown to bliss: Wasteland themes in *More Die of Heartbreak*. In *Saul Bellow and the struggle at the center*. New York: AMS Press.
- Pifer, E. (1990). *Saul Bellow against the grai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afer, E. B. (1993). From poem to cartoon: Comic irony in Saul Bellow's *More Die of Heartbreak*. *Critique*, 34(4), 203-219.
- Schulz, Dieter. (2000). Self and transcendence in "A Silver Dish." In G. Cronin & G. Bach (Eds.), *Small planets*. Michigan: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Higher**

이영애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92-1번지

Tel: (033) 263-2445

Cell phone: 011-785-2335

Email: yiyoua@hanmail.net

Received in Oct. 2006

Reviewed by Nov. 2006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 2006